

주 일 낮 예 배		
인도 : 이충원 목사		1부-오전 9:00 / 2부-오전 11:00
※예배선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	
※송 영	성가대	
※찬 송	찬송가 20장 /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38. 시편 92편	
기 도	1부 : 김수근 장로	2부 : 김수근 장로
헌 금	찬송가 353장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성경봉독	욥 32:10~14 (구 784P)	
교회소식	사회자	
찬 양		할렐루야성가대
설 교	「 내가 가는 길 」	이충원 목사
폐 회 송	찬송가 445장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축 도	이충원 목사	
※표는 일어서서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찬양예배		• 오후 2:00
• 기 도		
• 성 경		
• 말 씀		
• 축 도		

■ 수요일예배 •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30
• 성 경	고전 4:14~16	■ 셀리더교육	오후 8:50
• 설 교	나를 본받는 자	■ 중보기도	자정 12:00 ~ 새벽2:00

[illegible]

■ 2020년 말씀 기도 일독		셀: _____	이름: _____
요일 / 성경구절	말씀 기도제목		
20일(주일) 창세기 29~32장			
21일(월) 창세기 33~36장			
22일(화) 창세기 37~40장			
23일(수) 창세기 41~44장			
24일(목) 창세기 45~48장			
25일(금) 창세기 49~50장 출애굽기 1~2장			
26일(토) 출애굽기 3~6장			
셀 모임 공과	본문말씀 : 로마서 6장 8~13절		
(36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나? (롬 6:8)			
② 하나님께 다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 합니까? (롬 6:11)			
③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롬 6:12)			
④ 우리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롬 6:13)			

목회칼럼 「 나의 가는 길 」

조선시대에 영남지역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려면 동래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교박 1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양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령이나 추풍령 혹은 조령이라고도 불리는 문경새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넘어야만 했는데, 선비들은 유독 문경새재를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령은 대나무 고개입니다. 미끄러운 대나무 껍질은 선비들에게 파하고 싶은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즉 과거시험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죽령은 피한 것입니다. 그럼 추풍령은? 그렇습니다. 추풍낙엽처럼 낙방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출세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보니 이런 징크스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남대로 과거길은 동래에서 밀양, 대구, 상주와 문경새재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 모두가 한양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에 탈이 나서 한양까지 못가는 경우도 있었고, 산적들이나 맹수들의 위협으로 과거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선비들이 한양까지 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과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기생들에게 빠져 아예 대구에 머무르는 한량들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거나, 유혹에 무너진 선비들은 대구 기생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무르며 허송세월을 하다 돈이 다 떨어져서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들에게는 험한 길의 위험보다 달콤한 유혹이 더 무서운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인들에게 어찌 위험이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출세나 입신양명 같은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유혹과 쾌락에 한 눈 팔다 넘어지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은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함입니까, 복음을 높이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 9월 합심기도

하나	영혼이 잘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소서 (요삼 1:2)
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시 13)
셋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함으로써 영혼에 위로를 얻도록(사 51)
넷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단 1)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에서 예배모임에 대한 완화 발표(50명 이하)에 따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50명 이하로 모여서 드립니다. 여전히 소모임 모임과 음식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www.sechurch.kr) 접속후 *실시간 예배 영상 바로보기* 클릭 또는 유튜브에서 "의정부 성은교회"를 검색하셔서 주일예배 동영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③ 예정합동총회가 21(월)에 새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노회별로 지정된 곳(의정부 광명교회)에서 화상으로 열립니다. 목사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 이번 주 교회청소 - 6셀 ▶ 다음 주 - 7셀

◆ 9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종원
- 부교역자 : 정우준 노성진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은퇴장로 : 김호준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희 이희숙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0년 9월 20일 38호

2020년 성은교회 표어
"네 영혼이 잘됨 같이"(요삼 1:2)